

남중국해 中·필리핀 긴장 고조...美, 선박 보수시설 건설

뉴스위크 “필리핀, 중국과 전쟁 준비” 평가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남중국해 부근에 필리핀을 위한 선박 유지보수 시설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서는 “미국의 동맹인 필리핀이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17일 (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필리핀 해안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이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중국명 황현다오) 부근 해역에서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해경총대 선박 2척에 근접 항행하며 도발했다고 중국 측이 주장했다.

필리핀 선박이 약 30분간 여러 차례 항로를 바꾸고 반복적으로 중국 선박의 선미 부근을 빠르게 지나쳤으며, 100m 정도 거리까지 접근해 중국 측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필리핀 선박의 이번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과거에는 ‘피해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치고 빠지기’ 식으로 도발했다면 이번에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의 양샤오 부소장은 필리핀 선박은 배수량이 2



미 해군 니미즈급 핵추진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CVN-73)이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만에 정박해 있다.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은 최근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순찰 임무를 마치고 예정된 기항을 위해 마닐라에 입항했다. /EPA=연합뉴스

천300t급인 반면 중국 선박은 수백t급에 불과했다면서 이번 도발은 전례 없이 공격적이라고 봤다.

이러한 가운데 AP통신 등은 16일 미 해군이

남중국해 부근 필리핀 지역에 필리핀군 보트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설 2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주필리핀 미국대사관은 필리핀 팔라완주 서

부 오이스터만과 케손 지역에 해당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려는 동맹들의 목표를 강조했다.

2022년 집권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친중 노선을 뒤집고 반중 기조를 뚜렷이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도 강경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군 최신 무기체계를 잇따라 배치했으며, 법 제정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 영유권 범위를 확실히 규정하는 한편 대만의 무력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5일 온라인판에서 필리핀이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적 활동을 우려하는 지역 국가들과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만 안보가 필리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명백한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는 것이다.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합참의장도 지난 4월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개입할 것”이라면서 대만이 침공당할 경우에 대비해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과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전략요충지인 바시해협에서 공동 순찰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뉴스위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 ‘아메리칸 아이돌’ 음악감독 부부, 자택서 총격 피살

20대 용의자 체포...미 방송계 애도

미국의 유명 오디션 TV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베테랑 음악감독이 남편과 함께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미 방송·음악계가 애도하고 있다.

16일 (현지시간) 미 CNN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아메리칸 아이돌’의 음악감독인 로빈 케이(70)와 그의 남편 토머스 텔루카(70) 부부가 지난 14일 오후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

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경찰국은 이들 부부에게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자택에 출동해 이들 부부의 사망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나흘 전인 10일 누군가가 이들 부부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었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고 별다른 침입의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이들 부부의 살해 용의자로 22

세 남성인 레이먼드 부더리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더리언은 지난 10일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그사이 집에 돌아온 부부를 맞닥뜨리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집안에 설치돼 있던 감시카메라 영상과 현장의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용의자 신원

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희생된 로빈 케이는 2009년부터 16년간 ‘아메리칸 아이돌’의 음악감독으로 일해왔으며, 2014년에는 미 음악감독조합이 선정한 리얼리티TV 부문 최고 음악감독상을 받기도 했다.

‘아메리칸 아이돌’ 대변인은 성명에서 “로빈은 2009년부터 ‘아이돌’ 가족의 초석 역할을 해왔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경받았다”며 “로빈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600억대 뇌물’ 前 티베트 당서기 사형 집행유예

600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은 중국 서부 시짱(西藏, 티베트) 자치구 전 당서기에 대해 법원이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17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우잉제(吳英傑) 전 시짱자치구 당서기에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고 그가 뇌물로 축적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그는 2006-2021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등의 대가로 총 3억4천300만위안(약 66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분화...4년새 12번째

아이슬란드 서남부 레이카네스반도에서 또 다시 화산이 폭발했다.

AFP-DPA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56분께 쾨드흐뉘퀴르 분화구의 표면에 700m-1km의 균열이 생기면서 분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균열은 이날 정오께는 2.4km까지 커졌다. 또한 인근에 약 500m 길이의

두 번째 균열이 발생해 양쪽에서 붉은색 용암과 가스를 내뿜고 있다.

이 지역 화산 폭발은 2023년 말 이후로는 9번째, 2021년 초 이후로는 12번째다. 이 분화구는 어촌 마을 그린다비크와 유명한 온천 관광지인 블루 라군 사이에 있다. 당국은 예방 조치로 이 일대에 있던 약 100명을 대피시켰다.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인도 도피’ 전 총리

지지자와 시위대 충돌...4명 사망

방글라데시에서 인도로 도망간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지지자들과 하시나 정권을 무너뜨린 학생들의 주도로 결성된 국민시민당(NCP)이 집회 중 충돌하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현지 매체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전날 NCP 당원들은 하시나 전 총리의 고향이자 그가 이끌던 아와미연맹(AL)의 주요 거점 지역인 남서부 고갈간지 지역에서 하시나 전 총리의 퇴진 1년을 앞두고 이를 기념하는 행진을 벌였다.

그러자 하시나 전 총리 지지자들보이는 이들은 행진하는 NCP 당원들을 몽둥이로 공격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다. 또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도 공격했다.

현지 언론은 이 일로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다. 또 방글라데시 당국은 해당 지역에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 사건에 하시나 전 총리 퇴진 후 세워진 과도정부를 이끄는 무함마드 유누스 최고 고문(총리격)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폭력 사태의 책임이 AL과 그 산하 학생 조직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